

Maison

MAY

메종 **marie claire**

이방 벽 꾸밈 아이디어

Loft House in Paris

칠맛 나는 요리사 박재은식 라이프스타일

성만점 집들이 선물

주 골드 코스트로의 초대

Sunday Brunch Menu

Home Style

Tablewares

Special 12 Kids,

30 Smart Shopping

정가 6,500원



9 771227 846009
ISSN 1227-8467



II 휴가의 감성 담기

불인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가린 낮은 벽은 시멘트로 만들었다. 돌과 시멘트처럼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 극히 심플하게 만든 욕실은 전형적인 별장의 모습이다.

로 칠한 욕조는 창 아래 놓았다. 유리창에는 반투명 접착지를 붙여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벽등은 디제그노 루체(Disegno Luce) 제품으로 이네디(Inedit)에서 판매. 수전은 스텔라(Stella), 문 손, 반투명 접착지는 벨레다(Velleda) 제품.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단 조명 설치하기

위층의 거실로 이어지는 계단 벽에 사각형 조명을 매입해 마치 햇빛이 비치는 작은 창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리넨 커튼 뒤에 숨긴 세탁실에도 할로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해 매우 밝고 생생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골의 포도주 창고 문은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찾아낸 것. 벽 등은 아이구치니 제품, 리넨 천은 생 피에르(Saint-Pierre) 시장에서 구입. 스포트라이트는 해비넷 제품.

침실을 흰색 여백처럼 꾸미기

흰색을 사용하면 좀더 부드럽고 심플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거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그래서 이 방의 매끄러운 시멘트 바닥과 벽은 물론 베흐시장에서 찾아낸 암체어와 침대 커버, 심플한 사이드 테이블, 램프 등 모두 흰색으로 통일해 순결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오른쪽 구석 공간에는 흰색으로 칠한 두꺼운 판자와 소나무 널빤지를 이용해 책장을 만들었다. 구김이 있는 리넨 침대 커버는 카리반 상브르 19(Caravane Chambre 19) 제품, 사이드 테이블은 에르 사리엔 디자인으로 놀(02-518-9266) 제품. 램프 'A.J'는 아르네 아를스 디자인으로 에이후스(02-3785-0860)에서 판매.

파리의 20구에 자리한 옛 인쇄소를 구입하면서 젊은 데커레이터 룩산 베이는 그리스를 떠올렸다. 학교처럼 높은 창을 갖춘 이 장소가 그리스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태생을 이곳에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두 층으로 이루어진 173㎡의 넓은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단 문을 하나도 달지 않고 각 공간을 잘 구획하면서, 1층에는 사무실과 욕실, 그리고 침실이 있다(침실을 아래층에 배치하는 이유는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남쪽지방의 지혜이다). 그리고 위층에는 주방과 이와 연결된 넓은 거실이 있다. 두 개의 층은 벽에 붙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되는데 마치 에게 해에 있는 시클라드 제도의 집에 달린 계단을 보는 것 같다. 그리스 가옥을 참조해 만든 또 다른 요소를 살펴보면, 룩산이 심플함을 고집해 완성한 부엌 가구와 시멘트로 만든 욕실, 그리고 다른 공간을 나누기 위해 세운 낮은 벽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흰색을 빼놓을 수 없다. 매끈한 벽, 매끄러운 흰색 시멘트 바닥, 돌출된 돌 벽의 시멘트, 심플한 천으로 커버링한 소파와 암체어, 그리고 접착지의 불투명한 효과로 빛이 부드럽게 여과되는 창까지. 오로지 흰색만을 사용하면서도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공간이다. 흰색 벽의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매우 흐릿한 명암을 남기는데, 이 이미지는 무척 신비로운 투영도를 완성한다. 참으로 아늑한 착시 현상이자 극도로 심플하고 고요한 이 공간은 남부지방의 뜨거운 햇살에서 출발한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

여러 가지 스타일 섞기. 단, 요령 있게

재활용 목재로 만든 테이블에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의자를 놓았다. 단 흰색 컬러나 알루미늄 소재로 제한해 통일성을 주고 부드러움을 가미했다. 의자는 모두 모던하지만 동시에 대부분 각 시대의 디자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장 프루베의 스탠드 의자는 비트라(02-546-0096) 제품. 칠을 다시 한 빈티지 의자는 화이트 스피리트 제품. 베르너 팬톤의 팬톤 체어는 비트라 제품. 부를렉 형제의 '스트라이프드 체어(Striped Chair)'는 마지스 제품으로 한복스(031-761-5887)에 문의. '1006 네이비(1006 Navy)' 의자는 에메코(Emeco) 제품으로 콘란 슌에서 판매. 테이블은 장 베르나르 나비에 제작. 큰 거울은 세르주 라무루(Serge Lamouroux) 제품. 검은색 세라믹 꽃병과 접시는 넬송 세풀베다(Nelson Sepulveda) 제품으로 화이트 스피리트에서 판매. 벽등은 아이구치니(iGuzzini) 제품. 펜던트는 50년대 빈티지 제품.

어떤 각도에서도 안성맞춤인 블록 키친 만들기

주방 중앙에 놓은 간결한 디자인의 흰색 시멘트 블록 가구는 개수대는 물론 수납장, 그리고 조리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창 아래에 길게 만든 선반처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톤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주방의 전체적인 느낌과 우아하게 잘 어울린다.



개수대 아래의 수납장은 단순하게 맨틱 행주(푸스 드 몽트뢰이(Puces de Montreuil)에서 구입)로 만든 커튼을 달아 가렸다. 수전은 KWC, 개수대는 프랑크(Franke), 법랑 그릇은 화이트 스피리트, 벽등은 델타 라이트(Delta Light) 제품. 펜던트 조명은 50년대 초등학교에서 쓰던 빈티지 제품.



Loft Esprit

넓은 공간이 매력적인 파리의 복층 아파트. 젊은 스타일리스트는 이곳에 여러 개의 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했다. 벽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각각의 공간을 구분한 점도 재미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그녀가 어떻게 이런 모던하면서 경쾌한 분위기, 세련된 감성을 이끌어냈는지 알아보았다.

에디터 카트린 아르두앵(Catherine Ardouin)
르노 르그랑(Renaud Legrand)
포토그래퍼 마이 린(Mai-Linh/Box Management)
번역 박진영(프리랜서)

공간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XXL 크기의 가구 고르기

2층에 유일하게 있는 이 방은 무척 넓다. 그러나 거실 쪽에 오버사이즈의 흰색 소파와 암체어를 놓음으로써 밝고 넓은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

철도 침목으로 만든 상판에 작은 바퀴를 달아 만든 낮은 테이블은 디자이너 장 베르나르 나비에가 제작했다. 소파 위의 빈티지 펜던트 조명을 매단 T자 메탈 지주 역시 같은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 소파와 암체어는 콘란 슐, 촛대는 알리스 퀴에크(Alice Puech) 제품으로 화이트 스피리트(White Spirit)에서 판매.

INTERIOR

